

## 다문화가정 주거 계획에 관한 연구 - 전주시 결혼이주여성의 주거실태 및 요구중심으로 -

###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n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 - A Case of The Living Status And Need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Jeonju City -

정 화 \*  
Zheng, Hua

이연숙\*\*  
Lee, Yeun-Sook

이홍성\*\*\*  
Lee, Hong-Cheng

#### Abstract

It is common that most countries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ir capital cities. As a result, other areas do not develop as well as capital cities. Some areas even develop into a kind of distressed community. This leads to the outflow of population and also difficulties for remaining people in these areas. Under such social background, international marriages are on the increase in rural area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ausing many problems in connection with that. Many researches on multi-cultural families had been conducted recently, but most of them approached their studie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The physical, econom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se families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tudy the living conditions and the potential need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an in-depth and holistic way.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planning for multi-families is also provided. To do that, there are three stages of the research which are theoretical review, preliminary survey and main survey. Methods of literature review, workshop, and questionnaire are u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commendations for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idential planning are provided. Physically, living-room, bedroom, kitchen and toilet should be adjusted based on their needs. Socially, the feelings of alienation and exclusion should be reduced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Economically,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make sure that the second generations of multi-cultural families do not inherit poverty from their parents. Cultural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different needs of immigrants and to embrace their own culture.

Keywords : Multi-culture Families, Marriage Immigrants, Multi-cultural Community

주요어 :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다문화사회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Kim(2010)에 의하면, 한국사회는 국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국제 물적 및 인적 교류 확산, 온라인상의 정보공유 확산, 혼인수급의 불균형, 혼인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하여 인구의 국제이동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통계청 자료(2011)에 의하면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4,235건으로 2009년부터 9백 건 증가하였고,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혼인(326,104건) 중 10.5%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만 6천 3백 건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하였다.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 중 76.7%가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한국 남성과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36.6%), 베트남(36.6%), 필리핀(7.3%) 순이며, 상위 2개국 차지하는 비중이 73.2%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해 발전이 뒤지거나 낙후된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과다 인구의 상경과 농촌 및 중·소도시이탈 현상이 가중화되고, 이는 결국 중·소도시 잔여인구의 결혼난(結婚難)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농촌 및 중·소도시의 국제결혼사례는 유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속출하고 있다.

\*정회원(주저자), 한세대학교 공간환경디자인학과 전임강사

\*\*정회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Yeun-Sook Lee, Dept. Housing & Environment Design, Yonsei. Univ., 411, Samsungkwan, Yonsei University, Seoul120-749, Korea, E-mail: yeunsooklee@yonsei.ac.kr

이 논문은 2011년도 한국생태건축환경학회 춘·추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 09도시재생B02)에 의해 수행되었음.

따라서 최근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사회복지와 언어교육 및 자녀양육관련 내용인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연구자가 작성한 <Figure 1>의 내용과 같이 주거환경은 인간의 의, 식, 주를 담는 공간으로서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서 물리적 환경 그 자체인 동시에 최초로 접하게 되는 한국의 문화적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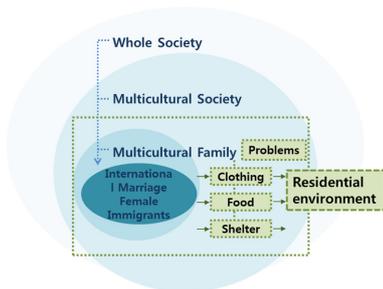


Figure 1. Necessity of Study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또한 주거환경은 하나의 단절된 개체가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사회의 문화를 조명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 등 여러 기타 요소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민에 있어서 주거환경은 공간적 개념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워크숍과 문헌고찰을 병행하여,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1) 장소 및 조사대상자 범위

본 연구의 장소적 범위는 전주시 노송동 쇄퇴지역-테스트베드지역(이하 시범사업지역)으로 국한시켰으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는 다문화가정 중 전주시에서 비교적 높은 거주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범위 한정배경은 시범지역이 국토부주관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으로 실제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지 계획 시 이 지역 및 주변에 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도 가능한 충분히 수렴·반영해보고자 함으로 이론과 실제의 연계가능성이 높고, 이주결혼여성들의 의견과 요구사항들이 반영되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내용적 범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한

국생활적응 및 정착에 있어서 주거환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최종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되는 연구의 단계를 <Figure 2>과 같이 ‘주거실태조사-주거요구 분석-주거계획 제시-주민참여를 통한 주민반응 조사-주민정착’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기초적 조사의 미흡현황을 감안하여 기초단계인 ‘주거실태 조사를 통한 주거요구분석 및 주거요구에 따른 주거계획방안 제시’까지를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Figure 2. Research Scope of the Study

II. 문헌고찰

1. 다문화사회

1) 다문화사회의 정의 및 유형

사전적 의미에서 ‘다문화’는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이라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특성이 서로 상이하며, 이에 대한 학계·학자에 따른 인식 또한 다르므로 지금까지 다문화주의에 대한 명확하며 통일된 정의가 없는 현실이다.

Table 1. Typ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ype	Contents	Authors
Liberal multi-culturalism	Accept the cultural, race, and ethnic differences. But demand the use of language, culture, and social customs of the mainstream society.	Cho Seokju 2007
Combinational multi-culturalism	Accept the competitive disadvantages of minorities. Active financial and legal support are conducted to enhance their social participation.	Kang Hwiwon 2006
Radical multi-culturalism	Insist ‘the right to difference’, aim for the construction of minority communities. Deny the culture, language, rules, values, and life styles of mainstream society and persue independent life style.	Hong Giwon 2006
Federal multi-culturalism	Accept the autonomy of minorities. Federal multi-culturalism can enhance multi-culture and their values and independence. Separation and isolation could also occur accordingly.	Cho Seokju 2007
Separate independent multi-culturalism	Conflicts could occur if the demographical separated minorities cannot gain more values than multi-cultural val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federal government.	Gu Gyeonseo 2003

다문화주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연구에서 언급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Park(2010)의 연구에서 Cho(2007), Kang(2006), Hong(2006), Gu(2003)에 따라 정리된 다문화주의 유형을 <Table1>과 같이 재정리 해본다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조합적 다문화주의, 급진적 다문화주의, 연방제적 다문화주의, 분리·독립형 다문화주의 등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과 같이 다양한 문화의 부딪침으로 생성되는 다문화주의는 지역·학계·학자별 다르게 논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진입단계에 입각하여 분석해볼 경우, 어떠한 이론과 정책에 의해 다문화주의의 방향이 이루어질지라도 이질적 문화가 만나는 초기단계의 공존상태는 불가피한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정책차원에서의 정의에 앞서, 이질적 문화가 부딪치게 되는 초기단계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질문화의 공존 현상’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 및 형성원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문화란 다양한 문화의 공존형태를 일컫는 말로 정의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문화가 여러 가지형태로 공존할 경우 보편적으로 주류와 비(非)주류로 나누어지게 되며, 사회문화는 비주류 문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나 여전히 주류문화 위주의 문화양상을 이루게 된다. 특히 장기간 순혈주의를 유지해오던 한국사회에서는 외래이민자의 등장에 동반한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으나 결코 주류문화를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는 외래이주민은 본인의 향후 거주예정기간에 따라 동화되거나 기존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집하며 주변문화로 잠시 정착했다가 귀국하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원인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문화와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외래이주민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결혼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다문화의 주체는 결혼이주민이며, 한국의 다문화사회 특성 또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정착을 하고자 하는 결혼이주민에게서 나타나는 동화지향적인 잠정적 공존이라고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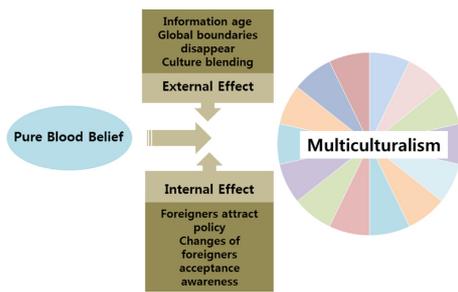


Figure 3. The Reason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ormation

Lee(2011)에 의하면 이러한 다문화적 사회 변동의 원인은 <Figure 3>과 같이 한국사회의 내적변화와 지구촌 전반의 외적변화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외국인유치에 대한 정책, 외국인 수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등이 더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한국 세계화’ 전략의 성과가 가져다준 일련의 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발전·성장과 더불어 다문화주의는 더욱더 신속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화시대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계의 소실, 문화의 융합 등 외적요인도 다문화주의의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3) 한국 다문화사회 문제점

다문화사회는 세계화와 국가 간 활발한 교류, 정보공공시대의 도래 등 여러 차원에서의 발전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화 간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살펴본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일부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채택되어 급성장하게 된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Kim(2009)에 의하면 현재 한국사회인 경우, 저 출산·고령화를 맞아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 이동, 그리고 여성의 고학력 및 경제활동의 증대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독신미혼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만혼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사회적 배경 하에서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감소 및 가치관의 변화,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은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현상의 지속으로 인하여 가속화 될 전망이다.

Jang(2008)에 따르면 다문화사회의 이행과정과 예측되는 구체적 사회적 문제점은 <Table2>와 같다.

Table 2.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during Implement Process and Prediction

Phase	Phenomenon	Problems that can be predicted
Enter	The growth of immigrants	Confusion may occur in single-race nation. mainstream society may have psychological resistance and discriminative attitudes, and low standards due to diversity and different values.
Change	Single immigrant form families,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of immigrants of the same origins	Lack of care between memb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ommunications due to language differences. growing divorce rate, family disorganization, the isolation of minority communities, poverty getting worse, intensified social inequality due to earning gap between ethnic groups
Settl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reform of immigrants communities	Identity problems of the second gen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growing social welfare burden due to immigrants' low education and low income (tax, medical, education, social services), the confusion and conflicts that may occur to the second generation in cultural society of the mainstream society, the emergence of their criminal and unemployment problems, the increasing conflicts between different ethnic groups, the dissolution of the sense of unity, the increasing social unrest due to resistance to mainstream culture

상술한 한국다문화사회의 문제점들은 앞서 언급한 일련의 부정적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경제난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 다문화가정의

이러한 상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문화가정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이룬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결혼이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정

1) 다문화가정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으로도 불리며,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0)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이란 두 개 이상의 문화권 소유자로 이루어진 가정을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를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고, 다문화가정을 이루고자 한국으로 이민해온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라 함은 체류자격 F-2-1과 F-5-2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정, 새터민 가정 등을 제외한 한국사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 한국 다문화가정의 현황

한국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수를 국적별로 알아보았으며, 통계청자료(2010)에 따르면 <Table 3>과 같다. 현재 한국의 결혼이민자 수는 총 141,654 명인데, 그 중 남성이 18,561명, 여성이 123,093명으로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resent Sojourn Conditions of Married Immigrants by Countries

Origin	Number	Gender		
		Male	Female	
Total	141,654	18,561	123,093	
China	China	35,023	3,594	31,429
	Korean Chinese	31,664	7,605	24,059
Vietnam	35,355	164	35,191	
Japan	10,451	848	9,603	
The Philippines	7,476	204	7,272	
Cambodia	4,195	7	4,188	
Thailand	2,533	39	2,494	
Mongolia	2,421	55	2,366	
USA	2,177	1,608	569	
Others	10,359	4,437	5,922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인 경우, 중국인(한국계중국인 포함)의 체류인원수가 66,6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베트남으로 35,355명이었으며, 일본이 10,451명으로 제3순위였다.

3.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의 역할 및 연구 필요성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주거환경은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들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요소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하나의 단절된 개체가 아니라 문화를 조명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 등 여러 기타 요소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거환경은 물질적 소유 및 경제성, 사회적 지위, 생활의 수준, 문화의 정체성, 등 여러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도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이룬 결혼이주민에게 있어 주거환경은 생존을 위한 은신처의 개념을 초월하는 한국에서의 전반생활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매개물로서 집이나 주택의 개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외적으로부터 입각하여 계획되는 주거환경보다는 다문화가정의 주체인 결혼이주여성의 요구를 내적으로부터 반영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와 다른 요구가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이들의 현재 주거실태와 이에 대한 불만사항 등 조사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결과를 개선기준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 예비조사와 본 조사 3단계로 진행하였으며, 문헌조사, 워크샵, 설문조사의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와 방법 및 일시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earch Plan

No.	Contents	Research Method	Period
1	Theory review	Literature review	2011.5~2011.9
		In-depth	1 <sup>st</sup> 2011.4.25
2	Preliminary survey	Interview	2 <sup>nd</sup> 2011.7.13
		Workshop	3 <sup>rd</sup> 2011.8.26
3	Main survey	Questionnaire	2011.12~2012.1

1)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정,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진행하였으며, 한국 학술정보사이트 RISS에 등록되어 있는 석·박사 학위논문과 게재논문 및 학술발표논문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2)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 사용될 설문조사 도구의 기초적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Table 5>와 같이 총 3차례의 워크샵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지역인 전주시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1명을 상대로 2011년 4월, 7월, 8월에 걸쳐 동일 국적 중복 조사, 다국적 별개조사 등 방법으로 총 3차례의 심층면담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조

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전주시 다문화가족센터이며, 조사대상자의 국적에 따라 한국어와 조사대상자 모국어(모국어 통역인원 배치)를 함께 사용하여 면담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예비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인 주거실태,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주거의 문제점, 주거요구 및 총체적 관점에서의 주거요구 등내용을 단계별 조사하였다.

Table 5. Outline of Preliminary Survey

Division	1 <sup>st</sup>	2 <sup>nd</sup>	3 <sup>rd</sup>
	China region 5	China region 3	Vietnam 3 Cambodia 3
Respondents	1 <sup>st</sup> , 2 <sup>nd</sup> same respondents 3		-
	Same nationality		Multi-national

3) 본 조사

본 조사에서는 앞서 실시한 이론적 고찰과 예비조사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전주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중화권(34명), 베트남(33명), 캄보디아(23명) 총 90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1월사이이며, 설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모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 분석의 틀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와 요구에 기반한 주거계획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 <Figure 4>과 같은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환경자체를 물리적 측면으로 간주하여 자체적인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 뒤, 이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요구와 결부하여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즉 주거환경의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은 주거내부환경, 주거공간구조, 주거주변시설 등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을 고려한 계획방향이 도출되도록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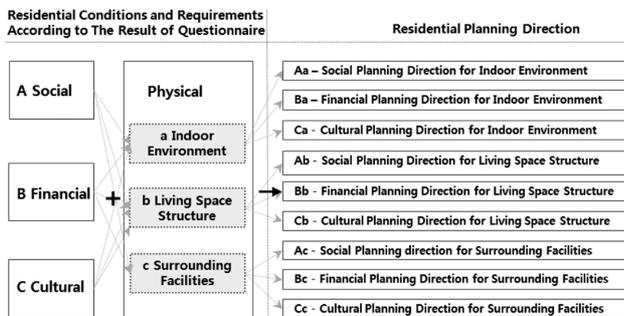


Figure 4. Analysis Framework

또한 이러한 주거계획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주거실태 및 요구파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한 도구로서의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6>과 같

이 일반적 사항, 물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F-검증 등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Table 6. Questionnaire Composition

Division	Items
General	Gender, Original country, Age, Partner's age, Reas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Education, Partner's education, Occupation, Partner's occupation, Family members, Residency duration in Korea
Physical	Residential condition Residential assessment Residential requirements
Social	Social relations Social support
Financial	Financial level Job
Cultural	Experience Culture-related items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국적은 중국(37.8%)>베트남(36.7%)>캄보디아(25.6%)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샘플비율의 순위는 실제 이 3개 국가의 결혼이주민 인원수 분포 순위인 '중국>베트남>캄보디아' 순위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Origin Nationalities of Respondents n=90

Division	Frequency(f)	Rate (%)
China	34	37.8
Vietnam	33	36.7
Cambodia	23	25.6
Total	90	100

국제결혼을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41.1%)라고 응답한 자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한국이 좋아서(30.0%)이며, 마지막이 더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28.9%)였다.

Table 8. Reason of International Marriage n=90

Reason	Division	Frequency (f)	Rate (%)
Reason	Financial improvement	36	41.1
	Like Korea	27	30.0
	For better partner	26	28.9
Total		90	100

조사대상자의 나이인 경우 20대(70.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20.0%)>40대(5.6%)>10대(4.4%)순으로 평균나이가 27세로 비교적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나이인 경우 40대(51.1%)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대(42.2%), 50대(6.7%)로 평균나이가 42세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이주여성의 평균나이 차이가 15세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Respondents' Age and Their Partners' Age n=90

Division	Respondent		Partner	
	f	%	f	%
10s	4	4.4	0	0.0
20s	63	70.0	0	0.0
30s	18	20.0	38	42.2
40s	5	5.6	46	51.1
50s	0	0.0	6	6.7
Total	90	100	90	100

학력의 경우, 본인의 학력은 고졸(45.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번째가 중졸 이하(42.3%)이며, 그 다음이 직업 전문대 이상(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인 경우, 고졸(58.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직업 전문대(1.7%), 중졸 이하(13.3%)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이주여성 모두가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은 무직(84.4%)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남편의 직업인 경우 회사원(33.3%) > 단순노무직(31.1%) > 자영업(27.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 Education and Occupation of Respondents and Their Partners n=90

Division	Respondents		Partners		
	f	%	f	%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38	42.3	12	13.3
	High school	41	45.6	52	58.9
	College · University or higher	11	12.2	16	17.7
	Total	90	100	90	100
Occupation	Unemployed	76	84.4	1	1.1
	Farmer	2	2.2	3	3.3
	Self-employed	2	2.2	25	27.8
	Worker	3	3.3	28	31.1
	Company staff	4	4.4	30	33.3
	Civil servant	1	1.1	3	3.3
	Student	2	2.2	0	0.0
Total	90	100	90	100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 이하(3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 6개월~1년 이하(24.4%)로

Table 11. Respondents' Residency Duration in Korea n=90

Division	Residency duration in Korea	
	f	%
Less than 6 months	32	35.6
6 months~1 year	22	24.4
1 year~2 years	10	11.1
2 years~3 years	8	8.9
3 years~5 years	12	13.3
Longer than 5 years	6	9.9
Total	90	100

나타났고, 장기거주와 단기거주 두 그룹으로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단기거주한 한국이민생활 초기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거가족 수(본인 포함)는 2명(37.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이 3명(23.3%), 4명(24.4%)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5명(10.0%), 6명 이상(4.4%)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able 12. Family Members n=90

Family members	Family members	
	f	%
2	34	37.8
3	21	23.3
4	22	24.4
5	9	10.0
6 or more	4	4.4
Total	90	100

2. 물리적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 및 요구

1) 기본 주거실태

기본 주거실태인 경우, <Table 13>과 같이 주택의 유형, 면적, 소유형태, 비용에 대한 부담감 등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 주거유형은 아파트(38.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 단독주택(30.0%), 단독형 빌라(13.3%), 연립주택(7.8%), 고시원 등 임시주거(5.6%), 주상복합용도주택(3.3%), 한옥(1.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3. Residential Condition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Rate (%)	Rate (%)
Housing type	Detached house	27	30.0
	Row house	7	7.8
	Villa	12	13.3
	Apartment	35	38.9
	Hanok	1	1.1
	Multipurpose building	3	3.3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5	5.6
	Temporary Non-residential facilities	0	0.0
	Total	90	100
	Housing area	Less than 10 pyeong	15
10 pyeong~20 pyeong		23	25.6
20 pyeong~30 pyeong		39	43.3
30 pyeong~40 pyeong		9	10.0
40pyeong~50 pyeong		3	3.3
More than 50 pyeong		1	1.1
Total	90	100	
Ownership	Own	41	45.6
	Lease	18	20.0
	Monthly rent	21	23.3
	Free of charge	4	4.4
	Others	6	6.7
	Total	90	100
Pressure of housing expense	Not a bit	12	13.3
	No pressure	11	12.2
	So so	30	33.3
	Pressured	28	31.1
	A lot of pressure	9	10.0
Total	90	100	

주택면적인 경우, 20평~30평 미만(4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평~20평 미만(25.5%), 10평 미만(16.7%), 30평~40평 미만(10.0%), 40평~50평 미만(3.3%), 50평 이상(1.1%)순으로 나타났다.

소유형태인 경우는 자가(45.6%), 월세(23.3%), 전세(20.0%), 기타(6.7%), 무상사용(4.4%)순으로 나타났고,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관해서는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응답수와 부담된다고 답한 응답수가 각각 33.3%와 31.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인 중간척도를 제외하고 '부담 된다'와 '매우 부담 된다'를 부정적 응답으로 그룹핑하고 '부담되지 않다'와 '전혀 부담되지 않다'를 긍정적 응답으로 그룹핑하여 비교해보았을 때 부정적 응답(41.1%) > 긍정적 응답(25.5%)으로 부정적 응답수가 더욱 많았다.

2) 주거환경상태 평가

주거환경상태에 대한 만족도인 경우, <Table 14>와 같이 내부 환경, 주거공간구조, 주변시설 등 카테고리로 나누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모든 항목 총 평균 만족도는 3.13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세 개의 카테고리 중 주변시설(3.40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근린시설에 대한 만족도(3.61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내부 환경이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난방에 대한 만족도(3.38점)가 가장 높았고 소음환경에 대한 만족도(2.84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거공간인 경우는 평균 3.00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고, 항목 중 침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식당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테고리별 주관적 전반 만족도와 항목별 만족도의 객관적 평균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주거공간구조 전반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항목별 객관적 수치에 따른 만족도는 같은 점수로 나타났고, 내부 환경은 0.32의 차이, 주변시설은 0.10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척도의 중간치인 '보통'을 제외하고 긍정과 부정적 응답을 구분해 보았을 때는 내부 환경에서는 난방, 냉방, 냄새, 채광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소음과 전반 환경만족도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주거공간구조에서는 침실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부엌, 식당, 거실, 화장실과 욕실, 전반주거 만족도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주변시설인 경우는 항목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3) 주거요구

(1) 기본 주거요구

기본 주거요구에 있어서는 <Table 15>(무응답항목제외)과 같이 주거유형인 경우, 아파트(43.3%) > 단독주택(36.7%) > 단독형 빌라(15.6%) > 연립주택(3.3%) > 한옥(1.1%)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면적인 경우 30평~40평 미만(42.2%), 20평~30평 미만(35.6%)이 비교

Table 14. Condition of Living Environment n=90

Division						Total	Mean		
	1	2	3	4	5				
	f (%)	f (%)	f (%)	f (%)	f (%)				
Indoor Environment	Heating	1 (1.1)	10 (11.1)	41 (45.6)	30 (30.3)	8 (8.9)	90 (100)	3.38	
	Air-conditioning	0 (0.0)	14 (15.6)	47 (52.2)	24 (26.7)	5 (5.6)	90 (100)	3.22	
	Ventilation	3 (3.3)	18 (20.0)	35 (38.9)	29 (32.2)	5 (5.6)	90 (100)	3.17	
	Noise	10 (11.1)	19 (21.1)	40 (44.4)	17 (18.9)	4 (4.4)	90 (100)	2.84	
	Odor	6 (6.7)	15 (16.7)	39 (43.3)	25 (27.8)	5 (5.6)	90 (100)	3.09	
	Light	2 (2.2)	15 (16.7)	39 (43.3)	27 (30.0)	7 (7.8)	90 (100)	3.24	
	Mean							3.15	
	Overall satisfaction	3 (3.3)	23 (25.6)	49 (54.4)	15 (16.7)	0 (0.0)	90 (100)	2.83	
	Living Space	Bedroom	3 (3.3)	11 (12.2)	45 (50.0)	25 (27.8)	6 (6.7)	90 (100)	3.22
		Kitchen	1 (1.1)	26 (28.9)	37 (41.1)	18 (20.0)	8 (8.9)	90 (100)	3.07
Dinning room		3 (3.3)	32 (35.6)	39 (43.3)	10 (11.1)	6 (6.7)	90 (100)	2.82	
Living room		2 (2.2)	25 (27.8)	44 (48.9)	15 (16.7)	4 (4.4)	90 (100)	2.93	
Toilet/bathroom		3 (3.3)	26 (28.9)	38 (42.2)	17 (18.9)	6 (6.7)	90 (100)	2.97	
Mean							3.00		
Overall Satisfaction	2 (2.2)	23 (25.6)	42 (46.7)	19 (21.1)	4 (4.4)	90 (100)	3.00		
Surrounding Facilities	Neighborhood facilities	2 (2.2)	5 (5.6)	35 (38.9)	32 (35.6)	16 (17.8)	90 (100)	3.61	
	Social welfare facilities	3 (3.3)	15 (16.7)	46 (51.1)	16 (17.8)	10 (11.1)	90 (100)	3.17	
	Neighborhood management	3 (3.3)	10 (11.1)	38 (42.2)	25 (27.8)	14 (15.6)	90 (100)	3.41	
Mean							3.40		
Overall satisfaction	2 (2.2)	9 (10.0)	48 (53.3)	20 (22.2)	10 (11.1)	90 (100)	3.30		
Overall mean							3.13		

\* 1: very dissatisfied, 2: dissatisfied, 3: fair, 4: satisfied, 5: very satisfied

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유형태인 경우 자가 소유 (88.9%)가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에 무상사용(10.0%), 전세(1.1%)로 나타났으며, 월세(0.0%)의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공간구조요구

주거의 공간적 요구에 대하여 거실인 경우, <Table 16>과 같이 입식(70%), 좌식(30%)로 입식을 원한다고 응답한 수가 더욱 많으며, 주방인 경우, 폐쇄형 단독주방(55.6%) > 개방식 주방(44.4%)로 단독주방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베란다인 경우 1개의 베란다가 있으면 좋겠다(68.9%) > 2개의 베란단을 원한다(30.0%) > 3개의 베란단을 원한다

Table 15. Residential Requirements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Housing type	Detached house	33	36.7
	Row house	3	3.3
	Villa	14	15.6
	Apartment	39	43.3
	Hanok	1	1.1
Total		90	100
Housing area	Less than 10 pyeong	0	0
	10 pyeong~20 pyeong	6	6.7
	20 pyeong~30 pyeong	32	35.6
	30 pyeong~40 pyeong	38	42.2
	40pyeong~50 pyeong	5	5.6
	More than 50 pyeong	9	10.0
Total		90	100
Ownership	Own	80	88.9
	Lease	1	1.1
	Monthly rent	0	0.0
	Free of charge	9	10.0
Total		90	100

Table 16. Space Construction Requirements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Living room	Stand-up	63	70.0
	Sitting	27	30.0
	Total	90	100
Kitchen	Separate	50	55.6
	Opening	40	44.4
Total		90	100
Veranda	1	62	68.9
	2	27	30.0
	3	1	1.1
Total		90	100
Bedroom	Ondolbang	10	11.1
	With bed	23	25.6
	Ondolbang 1, with bed 1	30	30.3
	Ondolbang 2, with bed 1	8	8.9
	Ondolbang 1, with bed 2	14	15.6
	Ondolbang 2, with bed 2	5	5.6
Total		90	100
Toilet/ Bathroom	a	1	1.1
	a+b	10	11.1
	a+c	3	3.3
	a+d	2	2.2
	a+e	2	2.2
	b	11	12.2
	b+b	6	6.7
	b+c	12	13.3
	b+e	1	1.1
	c	38	42.2
c+c	4	4.4	
Total		90	100

\*a: toilet with toilet bowl only, b: toilet with toilet bowl and shower  
 c: toilet with toilet bowl, shower and bath tub, d: toilet with shower only,  
 e: toilet with shower and bath tub (non-response answers were ruled out)

(1.1%) 순으로 나타났다. 침실인 경우는 온돌방 하나와 침대방 하나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30.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두 번째가 침대방만 있었으면 좋겠다(25.6%)이며, 온돌방 하나와 침대방 두 개를 원

한다는 응답자(15.6%)가 세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화장실과 욕실인 경우는 변기, 샤워기, 욕조가 있는 화장실 하나를 원하는 응답자수(42.2%)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변기와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 하나와 변기, 샤워기, 욕조가 있는 화장실 총 두 개의 화장실을 원하는 응답자(13.3%)로 나타났고, 마지막이 변기와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 하나를 원한다는 응답자(12.2%)로 나타났다.

(3)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지역으로의 이사여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배려한 주거단지를 계획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단지가 계획된다고 가설하였을 때 이곳으로의 입주의사를 물어보았다. 질문결과 단순이사의향을 물었을 경우 52.2%의 응답자가 이 곳 시범지역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7.8%의 응답자가 이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7. Intention to Move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Intention to move	Yes	47	52.2
	No	43	47.8
Total		90	100

(4) 주거지 주변시설에 따른 의사의향 변화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할 경우 이사를 하겠냐는 점진적 질문에 있어서는 85.56%의 응답자가 이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14.44%의 응답자가 여전히 이사의향이 없다고 답하였다. 조건 제공여부에 따라 응답의 변화가 발생한 응답자가 43명(47.78%)이었다.

Table 18. Change of Intention to move according to Surrounding Facilities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Intention to move when conditions are fulfilled	Yes	77	85.56
	No	13	14.44
Total		90	100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제공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한다고 가설했을 때의 이사의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앞서 이사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43명 중 39.5%의 응답자가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이사의향이 있

Table 19. Intention to Move When Conditions Are Fulfilled for Those Who Did not Intend to Move n=43

Demand	Frequency (f)	Rate (%)
Housing with better conditions	12	27.9
Formation of foreigner organization	11	25.6
Job offer	17	39.5
Facilities for elderly	3	6.9
Child care facilities	13	30.2
Community space	11	25.6
No intention to move	13	30.2

다고 응답하였고, 30.2%의 응답자가 보육시설을 제공하면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27.9%의 응답자가 다문화가정 생활개선을 위한 주택이 제공될 시 이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각각 25.6%의 응답자가 커뮤니티공간과 외국인 전문기관이 제공되면 이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을 배려한 주거계획 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주거단지 조성방식에 대한 요구

주거단지 구성에 있어서 원하는 동네의 조성방식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는 다국적 외국인이 모여서 살기를 원한다(47.8%)>한국인과 골고루 섞여서 살기를 원한다(45.6%)>동일국적 외국인 모여서 살기를 원한다(5.6%)순으로, 동일국적거주에 대한 희망률이 가장 낮으며 골고루 섞여서 살기에 대한 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 시에는 다국적 외국인과 혹은 한국인과 골고루 모여서 살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

Table 20. Preferred Neighborhood Type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People of the same nationality gather together	5	5.6
People from multinationals gather together	43	47.8
Korean and foreigners together	41	45.6
Did not answer	1	1.1
Total	90	100

3.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정 실태 및 요구 분석

1)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

한국생활에서 사회적 배제감이나 소외감을 받는가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7.8%)가 전혀 그렇지 않다(5.6%)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사회적 배제감을 조금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 시에는 이 점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21. Feeling of Exclusion from Society n=90

Index	Items	Frequenct (f)	Rate (%)	Mean
1	Very	7	7.8	2.96
2	Yes	16	17.8	
3	So so	46	51.1	
4	No	16	17.8	
5	Not at all	5	5.6	
Total		90	100	

결혼이주여성의 각각의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점수가 3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보통수준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3.70)이 가장 높았으며 이웃관계의 평균(3.31)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정의 주거단지를 계획할 경우 이웃 간 소통을 돕기 위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2.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 n=90

Relation	1	2	3	4	5	Total	Mean
	f (%)	f (%)	f (%)	f (%)	f (%)		
Husband & Wife	3 (3.3)	6 (6.7)	28 (31.1)	31 (34.4)	22 (24.4)	90 (100)	3.70
Family	1 (1.1)	8 (8.9)	32 (35.6)	34 (37.8)	15 (16.7)	90 (100)	3.60
Relatives	1 (31.1)	6 (6.7)	42 (46.7)	36 (40.0)	5 (5.6)	90 (100)	3.42
Neighbors	1 (1.1)	2 (2.2)	59 (65.6)	24 (26.7)	4 (4.4)	90 (100)	3.31
With foreigners	0 (0.0)	3 (3.3)	53 (58.9)	30 (33.3)	4 (4.4)	90 (100)	3.39
With Korean	0 (0.0)	2 (2.2)	55 (61.1)	28 (31.1)	5 (5.6)	90 (100)	3.49
Overall	0 (0.0)	3 (3.3)	53 (58.9)	30 (33.3)	4 (4.4)	90 (100)	3.39

1: very dissatisfied, 2: dissatisfied, 3: so so, 4: satisfied, 5: very satisfied

2)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필요한 사회지원

필요한 지원과 도움에 대해서는 언어소통(74.4%)>취직(57.8%)>한국사회 적응(44.4%)>본인교육(34.4%)>가족간 관계개선(15.6%)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소통과 취직 측면에서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23. Support and Help Needed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Fit into Korean society	40	44.4
Education	31	34.4
Language	67	74.4
Job	52	57.8
Family relation improvement	14	15.6

4. 경제적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정 실태 및 요구 분석

1) 다문화가정의 경제수준

(1) 생활수준

한국으로 이주한 후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보았을 때, 평균값이 2.39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위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수(46.7%)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하위수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45.6%)로 역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7.8%)가 있는 반면 상위수준과 최상위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4. Living Standard n=90

Index	Items	Frequency(f)	Rate(%)	Mean
1	Lowest	7	7.8	2.39
2	Low	41	45.6	
3	Middle	42	46.7	
4	High	0	0.0	
5	Highest	0	0.0	
Total		90	100	

(2) 생활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생활수준 레벨에 따른 전반 주거내부환경, 주거공간구조, 동네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 주거환경과 주거공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전반 주거환경과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5. Overall Residential Satisfaction by Living Standard n=90

Division		f	Mean	F	Duncan
Overall indoor environment satisfaction	Lowest	7	3.29	4.274*	A
	Low	41	2.61		A
	Middle	42	2.98		B
	High	0	0		A
	Highest	0	0		B
Total		90	2.83		
Overall living space satisfaction	Lowest	7	3.43	3.482*	A
	Low	41	2.76		A
	Middle	42	3.17		B
	High	0	0		A
	Highest	0	0		B
Total		90	3.00		
Overall neighborhood satisfaction	Lowest	7	3.43	.352	
	Low	41	3.22		
	Middle	42	3.37		
	High	0	0		
	Highest	0	0		
Total		90	3.30		

\*p≤0.05, \*\*p≤0.01, \*\*\*p≤0.001

(3)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대책

병에 들거나 수입이 없을 때의 경제적 대책을 물어 본 결과 못하고 있다(62.2%)>생각해본 적 없다(21.1%)>하고 있다( 16.7%)순으로 경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정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향후 경제적 문제에 처하게 됐을 때를 대비한 지속적이고 보다 영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가구주인 한국인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평균 15세로 남편이 노동력을 잃었을 때 이들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Table 26. Preparation for Sickness or No Income n=90

Index	Items	Frequency (f)	Rate (%)	Mean
1	Preparing	15	16.7	2.04
2	Have not prepared	56	62.2	
3	Never consider	19	21.1	
Total		90	100	

2)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의 일자리 상황

(1) 결혼이주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앞서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주거환경전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조사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도움 중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경제는 전반 생활의 기반으로

써 다문화가정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향상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 시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을 반응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항목별 응답비율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일자리 항목이 모국어 언어교육(37.8%)과, 외국인 안내 및 관리보조직(35.6%)이며, 그다음이 식당보조(23.3%), 어린이 보살핌(23.3%)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모국음식요리(22.4%)와 건설현장 등 단순노무(22.4%)로 나타났다.

Table 27. Jobs That Are Capable of Doing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Language teaching of mother tongue	34	37.8
Cuisine of origin nationality	22	22.4
Caregiver for the sick	9	10.0
House keeper	14	15.6
Baby sitter	21	23.3
Gardener	11	12.2
Cafeteria assistant	21	23.3
Foreigner guide/Management assistant	32	35.6
Office job	17	18.9
Specialized job	12	13.3
Worker	22	22.4
No answer	2	2.2

(2) 결혼이주민 대상의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필요여부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언어소통 등 문제로 노동력이 낮은 편이다. 이에 앞서 언급한 일자리를 위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질문에는 88.9%의 응답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주거단지 계획 시에는 지역사회에서 일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Table 28.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Job Training n=90

Index	Items	Frequenc (f)	Rate (%)	Mean
1	Yes	80	88.9	1.16
2	No	6	6.7	
3	No need	4	4.4	
Total		90	100	

(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일 할 경우 걱정거리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 일을 할 경우의 걱정거리는 이들이 경제적 노동을 하는데 대한 저해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일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며 조사결과 언어소통(77.8%)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적되었고 그다음이 아이 돌봐줄 사람 없음(35.6%), 가사노동 할 사람 없음(15.6%), 부모 돌봐줄 사

람 없음(2.2%)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다문화가정 주거단지 계획 시 한국어교육과 보육시설에 관한 계획요소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를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인과의 교류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서 협조적으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이를 뒷받침 해 줄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Table 29. Things That Worry When Having A Job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Language	70	77.8
Children are not taken care of	32	35.6
Parents are not taken care of	2	2.2
Housework is not taken care of	14	15.6

5.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문화가정 실태 및 요구 분석

1) 한국어를 배운 경험

한국어를 배운 시간은 6개월 이하(4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이 6개월~1년 이하(24.4%), 1년 이상~2년 이하(23.3%), 2년 이상~3년 이하(1.1%), 3년 이상(4.4%)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한국어를 접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30. Period of Learning Korean Language n=90

Division	Period	
	f	%
Less than 6 months	42	46.7
6 months~1 year	22	24.4
1 year~2 years	21	23.3
2 years~3 years	1	1.1
3 years~5 years	4	4.4
5 years~10 years	0	0
10 years	0	0
Total	90	100

2) 문화적 차이 관련사항

(1) 본국문화와 한국문화사이의 모순 정도

본국문화와 한국문화사이의 모순을 알아 본 결과 보통이다(43.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많다(26.7%)가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났으며, 적다(8.9%)가 세 번째 순

Table 31. Cultur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Origin Country n=90

Index	Items	Frequency (f)	Rate (%)	Mean
1	No	7	7.8	
2	Very few	5	5.6	
3	Few	8	8.9	
4	So so	39	43.3	3.46
5	Many	24	26.7	
6	So many	7	7.8	
Total		90	100	

위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남으로서 문화 간 모순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배우자와의 충돌과 모순 내용

문화차이로 인한 배우자와의 구체적인 충돌 및 모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생활습관(42.2%)>성격(35.6%)>모순없다(18.9%)>경제방식(14.4%)>연령(10.0%)>자녀 교육(7.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습관의 차이가 가장 큰 모순이므로 서로의 생활습관을 존중해주는 주거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2. Conflicts With Partner n=90

Division	Frequency (f)	Rate (%)
Personality	32	35.6
Age	9	10.0
Conflicts with partner Living Pattern	38	42.2
Financial Pattern	13	14.4
Children Education	7	7.8
No conflict	17	18.9

(3) 문화차이로 인한 모순대처방법

문화차이로 인한 모순이 생겼을 때의 대처방법인 경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다(55.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내가 양보한다(27.8%)가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양보한다(13.3%)가 세 번째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주 다툰다는(3.3%)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협하지 않을 경우 결혼이주 여성들이 본인이 양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주거환경계획 시 결혼이주 여성을 특별히 고려한 계획요소들을 추가하여 가족내부에서의 본인 지위를 간접적으로나마 상승시켜줄 필요가 있다.

Table 33. Behavior When Conflicts Occur n=90

Index	Items	Frequency (f)	Rate (%)
1	Would give away	25	27.8
2	Partner would give away	12	13.3
3	Both give away and compromise	50	55.6
4	Do not give away and always fight	3	3.3
Total		90	100

(4) 자녀의 본국 문화 습득 희망여부

자녀가 결혼이주여성 본국의 문화를 배우기를 원하는가의 질문에서는 매우 그렇다(54.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렇다(37.8%)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이 보통이다(7.8%), 전혀 그렇지 않다(1.1%)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에 있어서 본인의 문화에 대한 유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되 본인 문화도 잃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점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주거계획이 필요하다.

Table 34. Intention to Let Their Children Learn Their Origin Nation's Culture n=90

Index	Items	Frequency (f)	Rate (%)	Mean
1	Not at all	0	1.1	4.47
2	No	0	0.0	
3	So so	7	7.8	
4	Yes	34	37.8	
5	Very much	49	54.4	
Total		90	100	

## V. 결 론

### 1.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가정의 물리,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향후의 계획에 있어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혼이주여성 90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적은 중국(37.8%) > 베트남(36.7%) > 캄보디아(25.6%) 순으로 나타났고, 국제 결혼 선택원인은 경제적 향상(41.1%) > 한국이 좋아서(30.0%) > 더 좋은 배우자를 위해(28.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민들의 한국이주목적 중 경제적인 향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이는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20대가 70%로 최고비율을 차지한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40대가 51.1%로 최고 비율을 차지하여, 부부의 나이 차이가 평균 15세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은 결혼이주여성 본인인 경우, 고졸(45.6%) > 중졸(42.3%) > 직업전문/대졸(12.2%)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고졸(58.9%) > 직업전문/대졸(17.7%) 순으로 나타나 부부의 교육수준이 모두 비교적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인 경우, 결혼이주여성 본인은 무직이 84.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인 배우자는 회사원(33.3%) > 단순노무(31.1%) > 자영업(27.8%)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배우자 은퇴 후의 생활을 근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거가족인 경우 대부분 2인~3인으로 나타났고,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6개월 이하(46.7%) > 6개월 이상 1년 이하(24.4%) > 1년 이상~2년 이하(23.3%) 순으로 대부분으로 거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리적 측면에서의 조사결과 주거 실태인 경우, 주택유형은 아파트(38.9%) > 단독주택(30.0%) > 단독형 빌라(13.3%) 순으로 나타났고, 주택면적은 20평 이상~30평 미만(43.3%) > 10평 이상~20평 미만(25.6%) > 10평 미만(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유형태인 경우 자가(45.6%) > 월세(23.3%) > 전세(20.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비용 부담감에 있어서는 보통(33.3%) > 부담된다(31.1%)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3.3%) 순으로 나타나 부담감을 느끼

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평가에 있어서는 내부 환경의 경우, 만족도 순위가 난방(3.38점) > 채광(3.24점) > 냉방(3.22점) > 환기(3.17점) > 냄새(3.09점) > 소음(2.84점)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점수는 3.15점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공간만족도인 경우 침실(3.22점) > 부엌(3.07점) > 화장실/욕실(2.97점) > 거실(2.93점) > 식당(2.82점)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점수가 3.00점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시설인 경우, 근린시설(3.61점) > 동네관리상태(3.41점) > 사회복지시설(3.1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시설전반의 평균점수가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에 대한 요구를 봤을 때, 주택유형은 아파트(43.3%) > 단독주택(36.7%) > 단독형 빌라(15.6%) 순으로 나타났고, 주택면적은 30평~40평 미만(42.2%) > 20평~30평 미만(35.6%) > 10평~20평 미만(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유형태인 경우 자가(88.9%) > 월세(0.0%) > 전세(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한 요구도가 비교적 높고, 20평 이상 40평 이하의 면적을 원하는 응답자가 대부분이며, 자가의 소유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거실양식에 대한 선호도는 입식(70%) > 좌식(30%) 으로 나타났고, 주방인 경우 폐쇄형 단독주방(55.6%) > 개방식 주방(4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란다는 1개(68.9%) > 2개(30.0%) > 3개(1.1%) 순으로 나타났다. 침실의 경우 온돌방 1개+침대방 1개(30.3%) > 침대방만(25.6%) > 온돌방 1개+침대방 2개(15.6%) 순으로 나타났고 화장실/욕실의 경우 변기, 샤워기, 욕조가 있는 화장실 1개(42.2%) > 변기와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 1개와 변기와 샤워기와 욕조가 있는 화장실 1개(13.3%) > 변기와 샤워기가 있는 화장실(12.2%)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배려지역(시범사업지역)으로의 이사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순이사의향을 물었을 때는 이사의향 있다(52.2%) > 이사의향 없다(47.8%)의 비율을 나타냈고, 주변시설을 제공한다고 가설했을 때의 이사의향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이사의향 있다(85.6%) > 이사의향 없다(14.4%)로 나타났다. 시설과 조건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일자리 제공(39.5%) > 보육시설(30.2%) > 생활개선주택제공(27.9%)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하는 동네조성방식에 대해서는 다국적 외국인이 모여서(47.8%) >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여서(45.6%) > 동일국적 외국인이 모여서(5.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골고루 섞여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셋째, 사회관계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 및 소외감 유무

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51.1%)>그렇다(17.8%)=그렇지 않다(17.8%)>매우 그렇다(7.8%)>전혀 그렇지 않다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관계 만족도에 있어서는 부부관계(3.70점)>가족관계(3.60점)>한국인과의 관계(3.49점)>친척관계(3.42점)>외국인간 관계(3.39점)>이웃관계(3.31점)순으로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요한 지원과 도움의 경우, 언어소통(74.4%)>취직(57.8%)>한국사회적응(44.4%)>본인교육(34.4%)>가족간 관계개선(15.6%)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소통과 취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활수준은 중위수준(46.7%)>하위수준(45.6%)>최하위수준(7.8%)>상위수준(0.0%)=최상위수준(0.0%)로 나타났고, 생활수준에 따른 주거만족도 차이를 살펴봤을 때 주거내부환경과 주거공간구조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대비책인 경우, 못하고 있다(62.2%)>생각해본 적 없다(21.1%)>하고 있다(16.7%)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관련 질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국어 언어교육(37.8%)>외국인안내/관리보조(35.6%)>단순노무(22.4%)=모국음식요리(22.4%)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일자리를 위한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참여(88.9%)>불참여(6.7%)>불필요(4.4%)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고려한 주거단지계획 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을 할 경우 걱정거리를 살펴 본 결과 언어소통(77.8%)>아이 돌봐줄 사람 없음(35.6%)>가사노동 할 사람 없음(15.6%)순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부대시설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문화적 측면인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배운 시간은 6개월 미만(46.7%)>6개월 이상~1년 미만(24.4%)>1년 이상~2년 미만(23.3%)>3년 이상~5년 미만(4.4%)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를 접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로 인해 한국생활적응, 가족 간 소통, 취직 등 여러 측면에서의 영향이 있으므로 결혼 전 일정기간의 어학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거나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모국문화간의 모순과 충돌 정도를 살펴 본 결과 보통(43.3%)>많다(26.7%)>적다(8.9%)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의 가장 큰 모순은 생활습관(42.2%)>성격(35.6%)>모순 없다(18.9%)>경제방식(14.4%)>연령(10.0%)>자녀교육(7.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와의 문화습관적 모순 대처방법에 있어서 타협(55.6%)>내가 양보(27.8%)>배우자가 양보(13.3%)>양보하지 않음(3.3%)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질문화와의 모순을 겪고 있으며 남편과의 모순을 대응함에 있어서 비교

적 피동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러한 감성을 배려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간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장차 본국문화 습득하기를 희망하는 가하는 질문에서는 매우 희망(54.4%)>희망(54.4%)>보통(7.8%)>전혀 희망하지 않음(1.1%)>희망하지 않음(0.0%)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를 원하지만 본인의 문화유실은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제언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추출하고 분석의 틀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주거계획의 방향을 재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 대한 제언으로, 거실인 경우 좌식과 입식의 통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침실인 경우 한국인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온돌방과 침대방을 모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방은 음식문화의 차이 및 요리방식의 차이를 대비하여 단독주방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인 경우 욕조사용을 습관화해온 결혼이주여성도 고려하여 변기, 세면대, 샤워기, 욕조가 있는 화장실/욕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주거환경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소외감과 배제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특히, 주거공간에 있어서 남편의 가부장적 성향으로 인해 본인이 양보하며 생활한다는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주거계획 시 결혼이주여성의 공간적 위계질서 속에서의 지위를 확보해주는 등 간접적인 소외감 감소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주변시설에 있어서는 이웃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이웃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해주고, 아이 돌봄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협조적으로 덜어갈 수 있는 관계를 맺도록 공간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남’이 아닌 ‘우리식구’로 정착되게끔 인식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인 경우, 다문화가정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회취약층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고, 결혼이주여성 또한 경제력, 학력, 생산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 나이차이가 크고 경제적 대비책이 없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2세가 경제적 빈곤을 이어받지 않도록 이들의 자생능력을 도모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이 적고 지속적으로 양호한 주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한 공간구조를 일자리의 창출 장소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즉 자택의 일정공간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 분할하여 부업을 할 수 있도록 저비용 주상복합개념의 공간을 계획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

대비책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실정과 한국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 및 남편은퇴 후 경제소득이 없는 점,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등 문제로 인한 취업난, 생산력저하 등 상황을 고려한 부분이므로 주거계획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문화적 측면을 볼 때, 다문화가정 부부쌍방의 이질문화의 만남으로 인한 모순 등 점을 고려한 주거계획인 진행되어야 한다. 내부환경 및 주거공간구조에 있어서 가족내부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동화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주변시설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포용하고 이들이 자신의 특수성을 유용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주변시설들이 계획되어야 한다. 즉 모국 언어교육, 요리제작, 특산품 판매, 자국문화홍보 등을 지원해주는 포용력 있는 지역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여성 대부분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문화역량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인 현재의 삶의 질은 물론 본인의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후세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연수는 물론 기본 문화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공간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며, 생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또한 계획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기반 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체계적인 계획요소를 도출·정리하지 못한 점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주거계획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1. Cho, S. (2007). A plan to intensify the function of a local autonomous entity for multicultural-symbiosis - based on the cases of foreign-workers and wedding-immigrants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1(3), 3-46
2. Gu, G. (2003). Globalization and cultural change the theoretical system of multiculturalis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90, 29-53
3. Hong, G. (2006).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and cultural support policy. Korea: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4. Jang, M. (2008). The future of and political response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Gender Review*, 10, 44-49.
5. Kim, Y. (2009). The conditions of and political plan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and Welfare Forum*, 151, 29-30.
6. Kim, S. (2010). Socioeconomic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Health and Welfare Forum*, 165, 5-18.
7.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0. 12).
8. Kang, H. (2006). Integration of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actors and policy directions. *Research of National Policy*, 20(2), 5-34
9. Lee, H. (2011). Study on multicultural families' life and residential conditions. *Korea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Paper Collection*, 2011 v.1(spring), 243-246.
1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2010
1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2011
12. Park, E. (2010). *Study on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ing policy*.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13. Statics Korea (2011.10).

접수일(2012. 2. 24)  
 게재확정일(2012. 5. 15)